



# 시티그룹, 중국 내 신용카드 발급자격 취득

왕양비 연구원

■ 2월 6일 시티금융그룹(Citi Group)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국 현지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티은행은 홍콩계은행을 제외하고 최초로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외자계 은행이 될 예정임.

- 중국은 2008년부터 외자계 은행의 독립적인 신용카드 발행을 허용해 왔으나, 시티은행이 동 자격을 취득되기 전에는 홍콩동아은행(Bank of East Asia Ltd)이 중국대륙 지역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유일한 비중국대륙계 은행(홍콩지역은 중국에 있어 외국으로 인정되지 않음)이었음.
- 시티은행 신용카드는 2012년 내에 정식 발급될 예정이며, 대신 상하이부동산은행과 합작해서 발행하던 '부동-시티'카드의 발행은 중지됨.
- 중국에서의 신용카드 업무는 아직까지 '은련(银联, Union Pay)카드'<sup>1)</sup>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, 외자계 은행의 진입으로 경쟁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분석됨.
  - 시티은행 외에도 HSBC은행이 중국교통은행과 합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음.

■ 중국의 신용카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자계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망 확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.

- 중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1~9월 신용카드 발급량이 2006년의 5배를 초과한 2.68억 장에 달했으며, Mastercard사는 2025년 중국의 신용카드 발급량이 11억 장을 초과하고 결제액도 2.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다만, 외자계 은행의 지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신용카드업무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망의 확장이 필요함.
  - 현재 시티은행은 중국 13개 도시에서 46개 지점을 보유함.

(중국경제망, 인민망 2/7 등)

1) 은련은 중국은련유한공사(中国银联股份有限公司)가 운영하는 VISA나 MASTER카드와 비슷한 국제신용카드 결제망이며, 대한민국에서는 BC카드와 롯데카드에서 은련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함.